

제 74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(07.12.4)

한국조선산업의 현황과 기술개발

유병세

(한국조선협회 본부장)

한국은 조선산업에서 수주량에서 1999-2000, 2003-2006 년, 건조량에서 2002-2006 년, 수주잔량에서 1998-2006 년에 걸쳐 세계 1 위를 차지하였다. 2006 년말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 권내의 한국조선소를 보자면, 1 위 현대중공업, 2 위 삼성중공업, 3 위 대우조선해양, 4 위 현대미포조선 등, 5 위를 제외한 톱 7 위까지 독식하고 있다. 한국조선산업의 기술경쟁력은, 일본을 기준으로 상세설계 및 생산설계의 경우 다소 우위로 평가되며, 생산기술의 경우, 절단 및 용접에서 동등한 수준이고, 관리기술의 경우,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약간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.

한국조선산업의 SWOT 분석을 보면, 강점으로는 설계유연성, 약점으로는 고부가가치 선박용 및 핵심기자재의 낮은 국산화율, 기회로는 해상구조물 등의 신규분야 수요증가 예상, 위협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들 수 있다.

한국조선산업의 목표는 2015 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40%대로 성장시키는 것이며,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선박의 비율 확대 및 조선기자재 고급화와 IM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세계 조선 롤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.

한국조선산업은 80 년대에 외국의 선진조선기술 도입하여 90 년대에 체화된 모방기술을 바탕으로 고유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시기를 거쳐, 2000 년대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었다. 일본조선산업은 60 년대에 설비 확충하고 70-90 년대에 1 위를 줄곧 유지하다가, 최근 한국에 역전당한 상황이다.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, 내수기반의 약화, 대형조선소의 사업 다각화, 주요조선소의 통합재편, 건조 능력 감소, 고용인력의 변화, 기술력 및 경쟁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. 일본조선산업의 향후 전략은 세계시장 1/3 점유이다.

원천기술 확보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자면, 물론 원천기술 확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만, 이것이 힘들다면 생산기술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.

<Q&A>

Q. 여성이 조선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, 조선산업에 진출시 전반적으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?

A. 삼성중공업의 경우 30%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여성의 진출상황은 고무적이다. 필요한 자질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, 고급선종등은 해외기술이 필요하므로, 해외영업의 일손이 많이 필요하므로 어학능력 등이 되겠다.

Q. 한국, 중국,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조선산업에 적합한 이유는?

A. 조선산업은 1 차 산업과 세칭 4 차 산업과 같은 성격이 혼재하므로, 이 두 부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극동 3 국이 적합하다.

Q. 중국과 조선산업 협력이 있는데,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,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?

A. 현 한국의 조선산업 인건비는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. 그러므로 한국 인건비의 4 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 인건비와 중국의 풍부한 땅은 조선산업을 하는데에 적합하다. 향후에도 계속 활발한 협력활동이 있을 것이다.